

뉴스홈 | **최신기사** 

# 남자프로배구 재개...대한항공, 링컨·정지석 활약에 선두 질주

송고시간 | 2022-03-05 15:43













하남직 기자 기자페이지



대한항공 '쌍포' 링컨(오른쪽)과 정지석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프로배구 남자부 정규리그가 재개되자 선두 대한항공이 연승 행진을 다시 이어갔다.

대한항공은 5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남자부 방문 경기에서 삼성화재를 세트 스코어 3-0(25-20 25-19 25-20)으로 완파했다.

3연승 행진을 이어간 대한항공은 승점 56(18승 11패)으로, 2위 KB손해보험(승점 50·15승 14패)과의 격치를 6점으로 벌렸다.



갈 길이 먼 5위 삼성화재(승점 39·13승 16패)는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프로배구 남자부는 모든 구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18일간 중단됐다.

이번 시즌 가장 먼저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한 구단은 대한항 공이었다.

대한항공은 2월 13일에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나왔다.

가장 최근에 대규모 감염을 겪은 팀은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는 2월 24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총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 다.

경기 준비할 기간이 조금 더 길었던 대한항공이 더 높은 경기력을 보였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대한항공은 2월 13일 현대캐피탈-OK금융그룹전 이후 20일 만에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 귀한 승점 3을 얻었다.

이날도 대한항공의 상승 동력은 링컨 윌리엄스(등록명 링컨)와 정지석이었다.

링컨은 서브 에이스 4개와 블로킹 득점 2개, 후위 공격 7개 등으로 20득점 했다.

정지석은 서브 에이스 6개를 올리며 V리그 남자부 역대 3번째로 개인 통산 서브 득점 300개를 채웠고, 16점을 올렸다.

링컨과 정지석은 블로킹 1개가 부족해 트리플크라운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날카로운 서브와 높은 결정력으로 득점을 쏟아냈다.

이날 대한항공은 서브 득점에서 11-2로 상대를 압도했다.



### 대한항공 주포 링컨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링컨은 1세트 4-3에서 오픈 공격으로 득점한 뒤, 서비스 라인으로 이동해 2개 연속 서브 에이스를 터뜨렸다.

이어 김규민이 삼성화재 레프트 신장호의 후위 공격을 블로킹해 삼성화재는 8-3으로 달아났다.

삼성화재는 추격만 하다가 1세트를 내줬다.

2세트 승부의 추도 일찌감치 대한항공 쪽으로 기울었다.

대한항공은 10-8에서 토종 주포 정지석의 퀵 오픈으로 득점했다.

삼성화재는 카일 러셀의 오픈 공격으로 반격하려 했지만, 대한항공 리베로 박지훈이 공을 받아냈고, 링컨이 오픈 공격으로 역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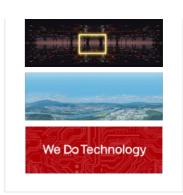
대한항공은 러셀의 공격을 또 수비로 걷어낸 뒤, 정지석의 퀵 오픈으로 득점해 13-8까지 달아났다.

삼성화재는 승부를 되돌리고자 안간힘을 썼다.

입대 직전에 우리카드에서 삼성화재로 트레이드되고, 2월 28일 새로운 팀에 합류한 세터 노재욱을 3세트 선발로 내세우면서 분위기도 바뀌었다.

삼성화재는 3세트 중반 15-13으로 앞서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정지석의 퀵 오픈으로 추격하고, 삼성화재 신장호의 퀵 오픈이 사이드 라인을 살짝 벗어나면서 15-15 동점이 됐다.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대한항공은 15-15에서 러셀의 공격을 받아내고, 정지석의 퀵 오픈으로 득점해 16-15, 역전에 성공했다.

신장호의 서브 범실, 링컨의 오픈 공격, 정지석의 연속 서브 에이스가 이어지며 대한항공은 20-16으로 달아났다.

링컨은 24-20에서 화려한 서브 에이스로 경기를 끝냈다.

jiks79@yna.co.kr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5 15:43 송고

#대한항공 #삼성화재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마스크만 빼고...'사회적 거리두기' 2년1개월 만에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45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3 대병원 자원봉사 € 61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4 동재개 예열?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5 ⊕ 40 힐예정"

뭐하고 놀까? ##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별뉴스**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시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 앱
 보다시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90.1229 | 발행일자 199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v